



중소기업,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현안 처리에
최선 다 할 터...

국회산업자원위원 국회의원 _ 이명규

집단에너지 회보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먼저,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와 환율하락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한국지역난방협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가 30년만의 호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연 3.9%로 5%의 잠재성장률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시장·반기업·반부자 정서에 가위눌린 경제는 저성장궤도로 떨어졌으며 중산층 붕괴와 빈곤의 심화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10여 년간 주춤거리던 대한민국은 지금 좌절과 희망 사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지친 기업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떠나는 마당에 그 빈자리를 메워 줄 낯선 외국 자본의 발길이 잦을 리 만무 합니다.

기업이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피땀 어린 노력 끝에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17대 국회 후반기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출, 무역, 중소기업 등 산업전반과 전력, 원유수급 등 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위원회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과 제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부정책에 있어 내수 활성화에 가장 절실한 것은 분배 위주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IT-BT-NT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활성화, FTA·도하 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른 국내산업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산적한 산업정책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또한 우리 서민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중소기업의 회생이야말로 무너지가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창조적 성장엔진으로서 우리 서민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현장 속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스스로 떳떳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장마철에 건강 유념하시고 한국지역난방협회가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